

발간등록관리번호

KYWA-2017-155-10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ith youth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진으로 보는 2017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진로라는 비전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출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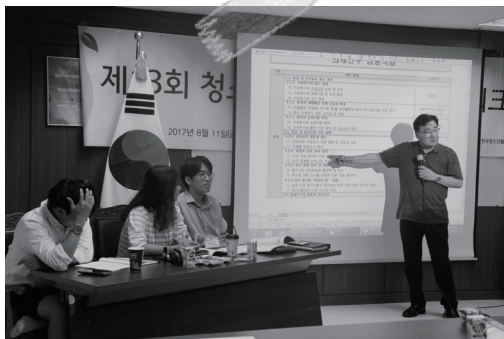
정책의제 선정



의제연구워크숍(1차)



의제연구워크숍(2차)



정책과제 체계화



예비회의



교류시간



출범식



본회의



정책과제 건의문 전달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 건의문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 정책의제를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쳐다>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위원들의 지역회의와 의제연구 워크숍, 예비회의 등을 거쳐 '체험', '상담 및 복지', '교육' 총 3개 분야 30개 세부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체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타당성조사 및 지원강화, 청소년시설 진로탐색 기능강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상담 및 복지

진로멘토링을 활성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진로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탈북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자립이 사회자기를 바랍니다.

하나. 교육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진로상담 기능 강화를 통해 더욱 자율적이고 체계화된 교과과정으로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꿈을 찾을 수 있는 진로교육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바라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본 건의문에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은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추구하고 의무와 책임 또한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사회발전의 주체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키워나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 11. 17.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일동

대 표 : 백주은, 이주원, 김현수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 건의문

목 차

제 1 장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개요

1. 추진배경	02
2. 제13회 추진경과	03
3. 제13회 구성	04

제 2 장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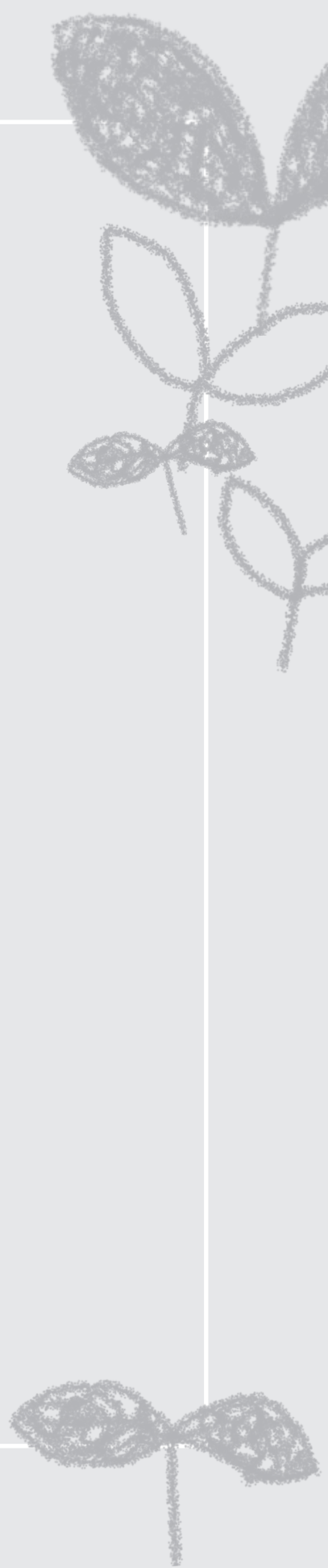
1. 출범식	06
2. 지역회의	08
3. 의제연구워크숍(1차)	10
4. 의제연구워크숍(2차)	11
5. 예비회의	12
6. 본회의	14
7. 평가회의	16

제 3 장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1. 개 요	20
2. 세부내용	23
3. 소관부처 검토의견	33

붙임자료

1.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48
2.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주요 언론보도	79





제1장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개요

1. 추진배경	02
2. 제13회 추진경과	03
3. 제13회 구성	04

I. 추진배경

-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청소년을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 형성
-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에 시범사업 이후 매년 개최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5. 12. 22)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6대 분야 20개 과제 제안
-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6. 10. 27)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 5개 분야 37개 과제 제안
-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7. 11. 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분야 18개 과제 제안
-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8. 11. 21)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 12)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분야 20개 과제 제안
-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1. 26)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
-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1. 11. 18)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
-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2. 11. 23)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분야 89개 과제 제안
-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3. 11. 21)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4. 11. 21)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5. 11. 20)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6. 11. 24)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7. 11. 17)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II. 제13회 추진경과

◎ '17.1.20.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기본계획 수립
◎ '17.2.3.	전문가 자문회의
◎ '17.2.9.~2.10.	담당자 워크숍 실시
◎ '17.2.13.~2.27.	정책의제 영역선정 온라인 투표 진행
◎ '17.2.27.	정책의제 영역선정 '진로'
◎ '17.3.16.	청소년운영지원단 구성
◎ '17.3.31.~4.1.	출범식 : 정책의제 선정, 의장단 선출 등 - 정책의제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17.4월~8월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활동
◎ '17.6.9.~6.10.	의제연구워크숍(1차) - 지역별 발굴 정책과제 공유 및 분야 구분
◎ '17.8.11.~8.12.	의제연구워크숍(2차) - 정책과제 체계화 및 심층 분석
◎ '17.9.8.~9.9.	예비회의 - 본회의에 상정할 정책과제 도출(30개 세부정책과제)
◎ '17.10월~11월	정책과제 관계부처 협의
◎ '17.11.17.~11.18.	본회의
◎ '17.12.15.	평가회의

Ⅲ. 제13회 구성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 구 성

－ 교급별

(명)

성별		초 · 중등	고등	대학	소계
남	여				
83	144	41	153	33	227

※ 22명 해촉, 최종 활동자 227명

－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청소년	14	9	12	18	13	20	11	14	12	10	18	15	14	9	11	10	17	227
남	4	3	3	3	2	9	5	9	2	2	7	6	9	5	4	5	5	83
여	10	6	9	15	11	11	6	5	10	8	11	9	5	4	7	5	12	144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기구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 － 대상: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대표 3명(선출직)
- － 역할: 청소년특별회의 주제 및 대표, 공약 추진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지원단

- － 대상: 청소년특별회의 기참가자 중 공개선발 청소년 6명
- － 역할: 주요 행사 기획 및 홍보,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전문가 자문단

- － 대상: 청소년 정책 및 정책의제 관련 전문가 3명
- － 역할: 정책과제 발굴 및 체계화 관련 자문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팀

- － 대상: 17개 지역회의 청소년위원 (1차: 36명, 2차: 35명)
- － 역할: 지역회의 정책과제 공유, 정책과제 분석 및 체계화, 예비회의에 상정할 정책과제 논의



제2장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활동

1. 출범식	06
2. 지역회의	08
3. 의제연구워크숍(1차)	10
4. 의제연구워크숍(2차)	11
5. 예비회의	12
6. 본회의	14
7. 평가회의	16

I. 출범식

□ 개요

- 기 간 : 2017. 3. 31.(금) ~ 4. 1.(토)
-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시 송파구 소재)
- 참석인원 : 총 272명
 -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 17개 지역회의 청소년위원 219명, 청소년운영지원단 6명, 역대위원 3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10명, 전문가 2명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5명, 지도자 17명, 시·도 공무원 4명
- 주요내용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선언, 추진계획 보고
 - 정책의제 선정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선출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 정책의제 투표 결과

구분	정책의제	득표수
1분임	JOB아라, Do dream	11
2분임	진로 잡고, 직접 JOB GO!	24
3분임	진짜 나로 가는 길, 우리가 함께 할 길	27
4분임	더 많은 기회로, 더 나은 미래를	30
5분임	꿈 꾸는 청소년, 미래를 길잡이 하다	17
6분임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35
7분임	Catch the dream, 기회를 드림	32
8분임	맞춤형 진로, 내가 맞춰가는 퍼즐	29
무효	-	4
총계		209

□ 진행 일정표

구분	시간	세부내용
1일차 <3.31.(금)>		
등록	12:30-13:30	○ 참가자접수
사전교육	13:30-14:00	○ 성희롱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기조강연	14:00-15:00	○ 미래세대와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백석대학교 박철웅 교수)
개회식	15:00-15:25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인사말씀 ○ 위촉장 및 배지수여 ○ 단체기념촬영
추진계획 보고	15:25-16:00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계획 보고 ○ 정책영역 선정과정 및 추후 일정 안내
정책의제 토의 · 선정	16:00-18:00	○ 정책의제 선정 토의(1부)
	18:00-19:00	○ 저녁식사
	19:00-20:00	○ 정책의제 선정 토의(2부)
	20:00-21:00	○ 논의 결과 발표 및 정책의제 선정
2일차 <4.1.(토)>		
의장단 선출	08:30-09:20	○ 아침식사
	09:20-11:30	○ 의장단 선출
폐회식	11:30-12:00	○ 의장단 임명장 수여 ○ 의사봉 전달 ○ 출범선언문 낭독 ○ 폐회사
	12:00-13:00	○ 점심식사 및 귀가

II. 지역회의

□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 기 간 : 2017년 4월 ~ 8월
- 주요내용
 - 지역별 회의 및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 지역별 발굴 정책과제 목록

지역	제안 과제
서울	미래혁신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국가 진로 종합계획 수립
부산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진로체험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확대
대구	학생 중심의 자유학기제로의 개선 방안
	직종별 진로교사 발굴
인천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연령별 진로설계 프로젝트
광주	모두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활동
대전	멘토링 사이트 개선
	진로체험교육 개선안
울산	효율적인 진로교육기반 조성
	다양한 진로활동 홍보 강화
세종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대학과의 교육 연계
	기존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보완
경기	대학교 단계별 교육
	진로멘토단

지역	제안 과제
강원	소수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진로 방향 설정
	자유학기제 사전 교육 및 학생 자율 신청과 학생 평가로 학생 참여 증진
충북	진로 관련 청소년자원봉사의 확대
	온라인사이트를 활용한 진로 멘토·멘티 제도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확대 및 사교육비 개선
충남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확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정책
	체험과 실습이 중심이 되는 진로교육
	탈북청소년의 맞춤형 진로교육
	학교 내 진로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전북	VOME(봄, VISION+HOME) 프로젝트
	교내 동아리 제도 개편 및 동아리 간 소통 활성화
전남	컴퓨터 교육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
경북	수도권-비수도권 청소년의 직업 체험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 확장
경남	청소년의 진로체험교육 다양한
제주	교외 진로관련 기구를 통한 진로 및 직업체험 확대
	교외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결연 기회 제공

Ⅲ. 의제연구워크숍(1차)

□ 개요

- 기 간 : 2017. 6. 9.(금) ~ 6. 10.(토)
 - 장 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석인원 : 총 43명
 - 17개 지역회의 대표위원 33명, 의장단 3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6명, 전문가 1명
 - 주요내용
 - 각 지역회의에서 발굴·제안한 정책과제 공유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관련 정책과제 체계화
-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추진결과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안)

분야	정책과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 확대 및 지원 강화 • 청소년 진로탐색 자율 동아리 지원 확대
상담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멘토링 활성화 •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 학교 내 진로상담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IV. 의제연구워크숍(2차)

□ 개요

- 기 간 : 2017. 8. 11.(금) ~ 8. 12.(토)
- 장 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석인원 : 총 47명
 - 17개 지역회의 대표위원 32명, 의장단 3명, 청소년운영지원단 6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5명, 전문가 1명
- 주요내용
 - 의제연구워크숍(1차)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논의한 정책과제 분석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에 상정할 최종 정책과제(안) 마련



□ 추진결과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분야	정책과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활동 기회 확대 • 온라인 진로체험활동 기반 구축 • 청소년시설 진로탐색 자율 동아리 지원 확대 • VOME(봄, VISION+COME) 프로젝트 추진
상담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 진로멘토 전문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 탈북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 확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제도 개선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프라 확대 • 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 진로교사 전문성 제고 • 진로와 직업 교과 내실화 • 진로 관련 강연 및 체험의 장 확대 • 진로 정보망 '커리어 넷' 개편 • 초·중기청소년 진로교육 기반 구축 • 후기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V. 예비회의

□ 개요

- 기 간 : 2017. 9. 8.(금) ~ 9. 9.(토)
- 장 소 : 대전KT인재개발원
- 참석인원 : 총 84명
 - 17개 지역회의 대표위원 49명 및 지도자 16명
 - 의장단 3명 및 청소년운영지원단 6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9명, 전문가 1명
- 주요내용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집중작업 및 최종 정책과제 도출
 -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정책과제 분석 및 체계화



□ 추진결과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 도출(3개 분야 30개 세부정책과제)

영역	정책과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활동 기회 확대 • 온라인 진로체험활동 기반 구축 • VOME 프로젝트 추진
상담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멘토링 인력풀 구축 • 온라인 멘토링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 탈북 및 장애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프라 확대 • 교내 진로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 진로교사 전문성 제고 및 진로와 직업 교과 내실화 • 진로 관련 컨설팅 및 체험의 장 확대 • 초·중기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 구축 • 후기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진행 일정표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1일차 <9.8.(금)>		
활동 및 행사안내	13:00-13:30	○ 등록
	13:30-14:00	○ 시설이용안내 및 안전교육, 성교육
개회식	14:00-14:30	○ 국민의례 ○ 애국가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내빈소개 ○ 개회사 ○ 인사말씀 ○ 2017년 추진경과 보고 및 정책과제(안) 발표 ○ 기념촬영
공유 · 토의	14:30-14:40	○ 휴식
	14:40-15:40	○ 교류시간(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청특골든벨)
	15:40-16:50	○ 의제연구 집중작업 I
	16:50-18:00	○ 의제연구 집중작업 II
	18:00-19:00	○ 저녁식사
	19:00-21:00	○ 의제연구 집중작업 III
	21:00-22:00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및 홍보 등 활성화 논의
2일차 <9.9.(토)>		
확정 및 폐회식	08:00-09:30	○ 아침식사 및 집결
	09:30-11:00	○ 최종 정책과제 도출
	11:00-11:30	○ 설문지 작성
	11:30-11:50	○ 폐회식
	11:50-13:00	○ 점심식사 및 귀가

VI. 본회의

□ 개요

- 일 자 : 2017. 11. 17. ~ 11. 18.(토)
-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 참석인원 : 총 227명
 - 17개 지역회의 청소년위원 182명 및 지도자·공무원 21명
 - 청소년운영지원단 및 본회의 준비단 10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12명, 전문가 2명
- 주요내용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보고



※ 3개 분야 30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분 야	정책 과제	과제 수	수용		수용불가
			수용	부분수용	
계		30	12	12	6
체험	진로체험활동 기회 확대	3	2	1	
	온라인 진로체험활동 기반 구축	2		1	1
	VOME 프로젝트 추진	2		2	
상담 및 복지	진로 멘토링 인력풀 구축	2	2		
	온라인 멘토링 강화	2	1	1	
	학교밖 청소년 대상 진로정보 제공 및 지원강화	3	3		
	탈북 및 장애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2	1	1	
교육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2	1	1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프라 확대	2	1	1	
	교내 진로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2		1	1
	진로교사 전문성 제고 및 진로와 직업 교과 내실화	2		1	1
	진로관련 컨설팅 및 체험의 장 확대	2			2
	초·중기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 구축	2	1		1
	후기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2		2	

-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이행현황 발표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우수 지역회의 시상 및 사례발표
- 청소년특별회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진행 일정표

구분	시간	세부내용
1일차		
식전행사	13:00~13:40	○ 참가자 등록 및 행사안내
	13:40~14:00	○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14:00~15:00	○ 특강 :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1부		
본행사	15: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빈입장 및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회사 ○ 축사 ○ 2017년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영상 ○ 2017년 정책과제 및 수용사항 발표 ○ 2016년 정책과제 이행현황 발표 ○ 건의문 낭독 및 전달 ○ 최우수 지역회의 시상 ○ 기념촬영
2부		
부대행사	16:00~16:10	○ 휴식
	16:10~16:30	○ 우수 지역회의 사례발표
	16:20~17:30	○ 소통하기 I : ‘전국 소통자랑’
	17:30~19:00	○ 저녁식사
	19:00~20:30	○ 청소년특별회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일차		
부대행사	07:30~09:30	○ 아침식사
	09:30~10:30	○ 분임별 토론결과 발표
	10:30~11:30	○ 소통하기II : ‘김현수의 볼륨을 높여요’
폐회식	11: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 폐회사 ○ 우수 지역회의 시상 ○ 설문지 작성 및 기념촬영
식사 · 귀가	12:00~13:00	○ 점심식사 및 귀가

VII. 평가회의

□ 개요

- 일 자 : 2017. 12. 15.(금)
- 장 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석인원 : 총 33명
 - 의장단 2명, 17개 지역회의 대표위원 및 지도자 26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4명, 전문가 1명
- 주요내용
 - 2017년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
 - 2018년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제언

□ 주요결과

- 진행 일정표

시 간	세 부 내 용	
11:30~13:00	○ 점심식사 및 등록	
13:00~15:0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2017년 청소년특별회의 연간 활동 보고	
	○ 분임토의 1 (지도자/2층 회의실)	○ 분임토의 2 (대표위원/5층 경영지원본부 회의실)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공유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활동평가 공유
	○ 전반적 사업운영 평가	○ 청소년추진기구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제언
15:00~15:30	○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발전 방안 모색	○ 지역회의 활동평가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 휴식	
15:00~15:30	○ 토의 결과 공유 및 마무리	

• 지도자 토의 결과

구분	내용
모집	1차(12월), 2차(2월) 모집을 진행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음
	사전 모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연임, 중임 등 명확한 지침 필요
홍보	협의를 통한 홍보 필요(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 등)
	연말 중앙정부 차원의 모집 홍보 필요(포스터 홍보 등)
	공문을 통한 홍보 시 수신처 지정필요(교무부장 등)
	청소년특별회의 성과에 대한 홍보 필요(수용률, 효과성 등)
	청소년특별회의 유료 홍보 이용(페이스북, 유튜브 등)
	연예인 홍보대사 운영
	자원봉사 등 청소년프로그램 기 참여청소년 대상 문자발송을 통한 홍보 필요
교육	출범식에서 지도자 교육을 진행했으면 함(회의운영법 등)
	담당자 대상 모니터링 관련 교육 필요
소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등 소수청소년 비율의 유동적 운용 필요
추진 흐름	출범식 시기를 모집 이후에 진행
	출범식, 예비회의, 본회의 등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 등 수행해야하는 과제가 너무 많음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필요(1박2일, 회의시간 등)
	담당자들 간 교류시간 필요
	정책제안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추진 체계	지역별 자문단 및 온라인 자문 필요
	사무국의 체계적 업무추진 필요(공결처리, 센터와의 업무 협의 등)
	정책 체계화 작업 시 전문가의 의견이 강함
	간식비 및 여비 등 사무국의 지원 필요
	지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축소 필요

• 청소년 토의 결과

구분	내용
모집	모집인원이 잘 모이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모집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책임감이 부족함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 부족
홍보	특별회의 지원서 제출 시, 청소년 추천서(서명)를 함께 제출
	버스, 지하철 광고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
교육	정책 영역과 관련된 강의 필요
추진 흐름	모집(1~2월), 출범식(3월)에 진행
	국정운영에 맞춰 특별회의의 운영 필요
	여름 및 겨울 워크숍 진행(교류 활동)
	각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의)가 모일 수 있는 장 마련(정책 공유, 교류 등)
	본회의 운영 시, 각 지역별로 진행하는 부스 프로그램 구성
	지역별 행사 순회 개최
	지역회의 평가회의 → 사무국 평가회의 순으로 진행
추진 체계	지역별로 역대위원(자문위원)을 뽑아 운영지원단으로 구성
	청소년특별회의의 행사 운영 시, 대통령 및 행사 개최 지역 시장, 교육감 등 관계자 참석
	본회의 정책제안 시, 관련 부처 부서 관계자 참석 필요
기타	청소년특별회의 명칭이 현재 우리가 하는 활동과 차이가 있음(명칭 변경)
	제1회~13회 역대 자료 업데이트(청소년특별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소년특별회의 홈페이지 개설 및 지역별 활동 내용 공유(게시판 활용)
	역대위원들과 관련된 자료(이름, 전화번호 등) 구축
	담당 지도자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필요
	각 17개 시·도 지역회의의 별 의제 분야 제안 → 의견 취합 후 정책 제안 투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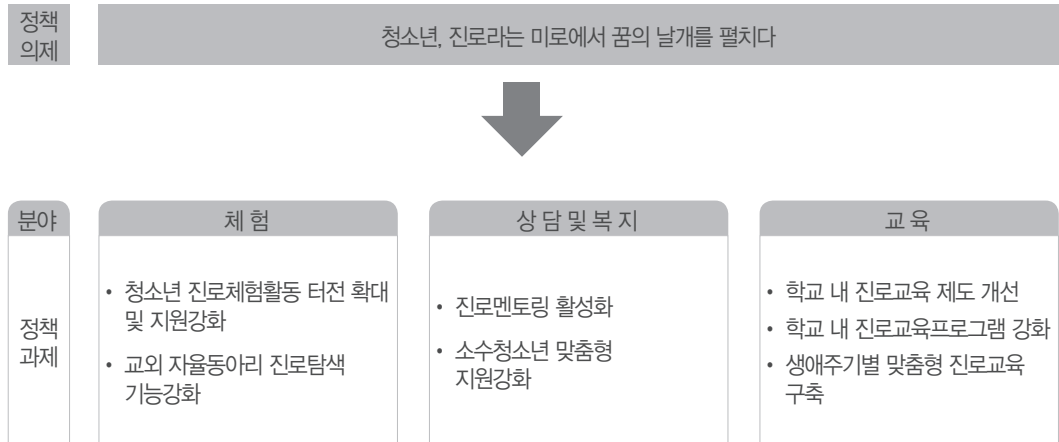
제3장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1. 개 요	20
2. 세부내용	23
3. 소관부처 검토의견	33

I. 개 요

□ 정책과제 체계 : 총 3개 분야, 30개 세부정책과제



□ 정책과제 수용여부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 여부
1. 체 험	1-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 확대 및 지원 강화		
	1-1-1. 진로체험활동 기회 확대		
	①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② 지역사회 진로체험 터전 체계적 관리 강화	교육부	수용
	③ 청소년 취업, 창업 및 인턴십 관련 실질적인 기반 확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1-1-2. 온라인 진로체험활동 기반 구축		
	④ 청소년 진로 설계 어플리케이션 “DiDi”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불수용
	⑤ 진로체험 가상현실(VR) 프로그램 개발 및 터전 설치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분수용
	1-2. 교외 자율동아리 진로탐색 기능강화		
	1-2-1. VOME 프로젝트 추진		
	⑥ VOME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지원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⑦ 청소년 박람회, 동아리와 VOME 프로젝트 연계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2. 상담 및 복지	2-1. 진로멘토링 활성화		
	2-1-1. 진로멘토링 인력풀 구축		
	⑧ 지역별 진로멘토단 구성 및 운영확대	교육부	수용
	⑨ 다양한 직업멘토 인력풀 확보	교육부	수용
	2-1-2. 온라인 멘토링 강화		
	⑩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진로멘토링 활성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수용
	⑪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 내실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부분수용
	2-2.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2-2-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⑫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⑬ 꿈드림센터 내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여성가족부	수용
	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2-2-2. 탈북 및 장애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⑮ 탈북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분수용
	⑯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 확장	교육부	수용

3. 교육	3-1.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3-1-1.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⑰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및 터전 확충	교육부	수용
	⑱ 자유학기제 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부	부분수용
	3-1-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프라 확대		
	⑲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 연계강화	교육부	수용
	⑳ 학생자원봉사 전문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부분수용
	3-1-3. 교내 진로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㉑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교육부	부분수용
	㉒ 교내 정규동아리 활동 시간 확대 및 전문교사 배치	교육부	불수용
	3-2. 학교 내 진로교육프로그램 강화		
	3-2-1. 진로교사 전문성 제고 및 '진로와 직업' 교과 내실화		
	㉓ 진로진학 상담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교육부	부분수용
	㉔ 교내 체험형 프로그램 체계화 및 확대 운영	교육부	불수용
	3-2-2. 진로 관련 컨설팅 및 체험의 장 확대		
	㉕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활성화	교육부	불수용
	㉖ 분야별 진로 컨설팅 전문화 및 체계화	교육부	불수용
	3-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구축		
	3-3-1. 초·중기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 구축		
	㉗ 초·중기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교육부	수용
	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불수용
	3-3-2. 후기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㉙ 후기 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턴제도 활성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부분수용
	㉚ 대학 갭이어(gap year) 정책 제정 및 운영	교육부	부분수용

II. 세부내용

1. 체험

1-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 확대 및 지원 강화

1-1-1. 진로체험활동 기회 확대

◆ 제안배경

- 단순 심리검사 분석이나 몇 차례의 상담, 현 세대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정보제공은 진로 설정에 부수적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진로선택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는 어려움
-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향의 실질적 접근 요구

◆ 정책과제

- ①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공공기관, 시설, 단체의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청소년기관, 이용시설의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② 지역사회 진로체험 터전 체계적 관리 강화
 - 진로체험지원센터 대상 확대 및 활성화
- ③ 청소년 취업, 창업 및 인턴십 관련 실질적인 기반 확대
 - 공공기관 · 기업체 연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취업 및 창업, 인턴십 전담기구 설치 및 홍보 활성화(SNS)
 - 일학습병행 지원에 대한 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1-1-2. 온라인 진로체험활동 기반 구축

◆ 제안배경

- 교내 진로 교육의 효과성 미비
 - 전교생을 담당하는 진로교사, 업무과다로 인해 불가피한 진로교육의 질적 결핍
- ※ 진로교사 1인당 학생 수 약 454.2명(2017년 중학교 기준, 고등학교 744.8명)
- 시설 진로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유료 결제 유도, 불필요한 광고 노출 및 현 공식 진로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질적 결핍, 효용성 미비
- 양질의 진로체험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이동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이용에 따른 경비와 체험비 등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돼 다양한 진로체험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

◆ 정책과제

④ 청소년 진로 설계 어플리케이션 “DiDi” 개발 및 보급

- 개인 맞춤형 진로 수행 프로그램 제공
- 교내 진로 수업 활용 자료 공급 또는 사용 의무화
- 청소년 홍보단, 관리단 운영(어플리케이션 문제점 분석 및 홍보)

⑤ 진로체험 가상현실(VR) 프로그램 개발 및 터전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문화복합공간 등 청소년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가상현실(VR) 진로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수요에 일치하는 직업체험 VR 프로그램 개발

1-2. 교외 자율동아리 진로탐색 기능강화

1-2-3. VOME(봄, VISION+COME) 프로젝트 추진

◆ 제안배경

-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로 예체능 위주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인문 사회, 자연계열 등의 학습 및 활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화의 집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66.7%, 동아리 활동 경험은 88.4%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예체능 동아리 활동으로 나타남(청소년특별회의 전북지역회의 설문 자료)
- ‘봄’과 관련한 참가 의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70%의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청소년특별회의 전북지역회의 설문 자료)

◆ 정책과제

⑥ VOME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지원

- 청소년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한 ‘VOME’운영위원회 설립(각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활동)
- 기획부, 홍보부, 모니터링 단으로 구성: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계획
- ‘VOME’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프로젝트 담당 전문 교사(교육 전문가)를 따로 지정

⑦ 청소년박람회, 동아리와 VOME 프로젝트 연계

- 청소년박람회에 ‘봄’ 박람회를 접목시켜 부스를 운영하고 ‘봄’ 동아리 별도 시상
- 청소년문화의집 사이트와 ‘VOME’ 페이지를 통합하여 지역별 또는 비슷한 동아리들의 교류 확대

2. 상담 및 복지

2-1. 진로멘토링 활성화

2-1-1. 진로멘토링 인력풀 구축

◆ 제언배경

- 진로멘토단의 일관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과 일부지역 편중
 - 제주에는 '아라멘토단', 성남시에는 '성남시 진로멘토단', 서울에서는 '대학생멘토단'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주최하는 기관이 각자 다르며 운영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존재함
 - 지역별 진로멘토단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진로 정보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로 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함
- 진로멘토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낮은 관심도
 - 진로멘토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여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음

◆ 정책과제

⑧ 지역별 진로멘토단 구성 및 운영확대

- 현재 진로멘토단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는 진로멘토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함
- 진로멘토단에 대한 기준, 운영방식 등을 새롭게 구축하여 통일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⑨ 다양한 직업멘토 인력풀 확보

- 다양한 직업의 종사자를 멘토로 선출하여 진로멘토링 인력 확충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직업 종사자를 직업멘토 선출 권고

2-1-2. 온라인 멘토링 강화

◆ 제언배경

- 개인의 특성 및 차이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멘토링 시스템의 한계점
 -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적 만족을 제공해야하며, 특히 오프라인 멘토링보다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이 이에 적합함
- 사람들의 낮은 '온라인 멘토링' 활용도
 - 제한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멘토-멘티 간의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격 영상 진로 멘토'의 활용이 미미함(통계청, 2016)

학교 진로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별	201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 프로그램	63.3	74.2	68.3
커리어넷	88.2	95.2	92.0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35.2	58.7	40.8
진로선택기 진로상담 종합 지원체제	44.7	60.9	55.8

◆ 정책과제

⑩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진로멘토링 활성화

- '커리어 넷', '워크넷'의 온라인 멘토링 기능 강화
- 상담내용의 전문성 강화 및 1대1 원격 상담 시스템, 오프라인 상담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

⑪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 내실화

-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의 실효성 강화 및 활성화, 다양한 방식의 홍보 진행
- 온라인 상담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멘토에게 인센티브 부여

2-2.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2-2-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 제안배경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CYS-Net)의 중심 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안교육 위탁기관, 청소년쉼터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함
- 학업 중단을 했거나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함
 - 꿈드림센터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낮고 상담인원 부족 등의 내부적인 문제 발생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센터 규모에 비해 그 이용률이 현저히 낮음.
 - 학업 중단 시 주요 상담 내용은 진로상담이(48.3%) 가장 높았으나, 학업형(해밀 프로그램), 직업형(두드림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은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청소년이 원하는 유형의 지원 기관이 없음 (2015년 관계 부처 합동 발표 자료)

◆ 정책과제

⑫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 확대

- 학업중단속려제(dropcess) 운영 효율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양화

⑬ 꿈드림센터 내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꿈드림센터 내에 전문가 배치 및 지속관리를 통한 진로정보제공 기능 강화

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 학교와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간의 연계 확대(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2-2-2. 탈북 및 장애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 제언배경

- 탈북청소년의 수는 점점 증가하지만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2016년 기준, 탈북청소년의 전체 수는 1,266명으로 2014년 1,111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탈북청소년의 진로교육은 탈북청소년의 탈북배경 및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유형별로 겪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이 필요함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개교씩, 총 30개교가 지정되었음.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실 수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2012년 이후 수정되고 있지 않음. 또한 각 학교 별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어려움

◆ 정책과제

⑮ 탈북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캠프 및 박람회 운영 확대
- 탈북청소년 학교진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하나센터 내 탈북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⑯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 확장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역별 균등화(각 시·도별 2개교 이상 설치)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네트워크 정보 주기적 갱신
(거점학교 전국 현황 및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3. 교육

3-1.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3-1-1.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 제안배경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이 미흡함.
 - 충북도내 중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음 학년 시험에 대한 부담감, 진로와 관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 체험시설 부족, 한정적인 프로그램 등의 답변이 나왔음.
 - 자유학기제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들의 꿈과 관련된 활동, 자유로운 활동, 진로와 관련된 체험과 활동,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 등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진로체험을 원하였음.

◆ 정책과제

⑰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및 터전 확충

- 자유학기제 진행 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청소년의 욕구 파악 및 교육청, 공·사기업과의 연계추진
- 체험기관 방문 시 청소년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⑱ 자유학기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현재 중학교 1학기에 한정되어 있는 자유학기제 기간을 중학교 교육과정 전체로 확대
-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시범 요일을 지정하여 자유학기제 사전 교육 및 진로, 체험활동을 진행

3-1-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프라 확대

◆ 제안배경

-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요구
 -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직업체험은 5점 만점에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과 및 학교견학(4.05점), 진로 및 경제캠프(4.04점)이었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활동에 참여하여 높은 진로역량을 지니고자 함

◆ 정책과제

⑲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 연계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시 격월로 '문화의 날' 또는 '청소년 문화제', '진로의 날'을 확대 운영
- 시·도내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행사진행 기간 동안 여러 예체능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진로활동과 관련된 연극 및 공연, 전시회, 진로체험 등을 정기적으로 교내 청소년 운영위원과 진행

㉔ 학생자원봉사 전문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

- 현재 기관과 사이트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봉사관련 정보를 통합한 전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 어플리케이션 내 청소년들의 관심, 흥미, 희망직업계열, 지역 등의 구분에 따라 봉사 질의응답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의견 반영

3-1-3. 교내 진로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 제안배경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이 자아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허철수, 강옥련 수정인용)
- 동아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지원 부족(29%), 동아리실 부재(28%), 연습시간 부족(25%), 동아리 내 다툼(10%), 성적 및 학교와의 마찰(8%) 순으로 나타남.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및 동아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 정책과제

㉑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 교내 동아리 예산 지원 확대
- 교내 빈 교실을 수요일에 따라 휴일에도 개방하여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 다양한 동아리 체험기회 및 활동 계획서 작성, 동아리 결과 발표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㉒ 교내 정규동아리 활동 시간 확대 및 전문교사 배치

- 교내 동아리 시간 확대(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전문가 등 외부기관과의 전문 인력 연계 활성화
- 전문교사 배치에 대한 운영 지원(강사 수업 운영계획서 작성 및 수업 지원금 확대, 학교 별 진로전문교사 배치 확인 등)

3-2. 학교 내 진로교육프로그램 강화

3-2-1. 진로교사 전문성 제고 및 '진로와 직업' 교과 내실화

◆ 제안배경

- 진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사가 아닌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종별 교사의 필요성
- 진로전담교사 한명이 한 달 동안 상담하는 학생의 수가 27.9명으로 과다함. 또한 학생들의 선호 직업의 수에 비해 진로교사는 '진로교육법 제 4조'에 의한 학교별 1명 이상만 배치되어 있어, 포괄적인 지식은 있지만 직종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구성에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부산지역 중학교 진로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체험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명이 찬성을 했으며, 그 이유로는 학업 및 이수해야 할 교수시수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여건 미흡,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체험 필요, 다양한 체험을 통한 정확성 증대 등의 의견이 나왔음
(2017. 7. 5. 부산지역 진로교사 네트워크 회의,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정책과제

②③ 진로진학 상담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모든 중, 고등학교 내 학년 별 진로 전문교사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
-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②④ 교내 체험형 프로그램 체계화 및 확대 운영

- “진로체험의 날(가제)”을 학교마다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 진로체험의 날 지원 대학생 인원 배치 및 참여인원 인센티브 부여
- 교육청 산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용을 통한 진로체험의 날 내실화

3-2-2. 진로 관련 컨설팅 및 체험의 장 확대

◆ 제언배경

- 청소년들의 진로 정보 제공의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SNS 및 인터넷에 비전문적인 정보가 많음

◆ 정책과제

②⑤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활성화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를 각 시도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및 지원
-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의 시행 횟수를 예산 및 시간 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 6회 내지 7회로 고정
- 박람회 내 진로 전문가 초청 및 학생 참여형 강연 강화, 1:1 진로 및 진학컨설팅 제공

②⑥ 분야별 진로 컨설팅 전문화 및 체계화

- ‘찾아가는 진로전문가단’을 구축하여 매년 1회 이상 교내에서 분야별로 컨설팅을 진행
- 17개 시도 내 중,고등학교를 나누어 시범학교를 지정 및 1차 시행 후에 해당되는 교내 청소년 및 교사를 대상으로 피드백 실시, 차후 전국 확대

3-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구축

3-3-1. 초·중기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 구축

◆ 제안배경

- 학생설문 결과 '진로 계획과 진로 준비의 중요성' 문항에 전체 학생의 89.2%가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를 선택 함. 이를 통해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을 체계화 하는 것이 요구됨. (2012 학교 진로교육 지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많은 학생들이 '진로 계획과 진로 준비'를 중요시하는 반면 교내 진로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 진로관련 수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기초통계표 - 진로교육센터의 운영사업)

◆ 정책과제

⑳ 초·중기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Ex)

구 분	내 용	
14세	진로교사 → 학생들 진로 교육	
15세	자아정체성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다양한 직업인 초청(한 달에 한 번)	
16세	고입 진로상담(고등학교 자세히 설명)	
17세	고등학교 적응상담/W-class 학업중단 상담	지방 대학 현장 수업
18세	학과상담/출신학교 멘토-멘티 강의	
19세	맞춤형 대입 및 진로 상담	

㉑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 확대

-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을 실시
-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율 확대

3-3-2. 후기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제안배경

- 기존 후기청소년 관련 제도 내에서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함
- 단순한 직업체험 기회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질 좋은 콘텐츠가 미비함
- 직무미스매치로 인해 기업을 떠나는 후기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자신과 맞는 직무를 찾는 것이 중요함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 국제성인능력측정프로젝트 (PIAAC)보고서-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책과제

②⁹ 후기 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턴제도 활성화

-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체험형 인턴제도를 도입
- 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율을 높임

③⁰ 대학 갭이어(gap year) 정책 제정 및 운영

- 기존의 휴학제도를 개편하여 1년 단위의 갭이어(gap year) 휴학을 시행 및 교육부 고시 제정 및 발표

Ⅲ. 소관부처 검토의견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청) 소속 산하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민간기관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전문 특화 진로체험 개발·보급 * 15개 부처(청), 35개 소속 산하기관 참여 ○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특화산업과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지자체(7), 공공기관(38), 민간단체(31), 대학(37), 진로체험지원센터(11) 등 총 124개 기관(진로체험 연계 산업 42종) 참여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연계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진로체험 터전 체계적 관리 강화 	교육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처 발굴 관리, 체험처-학교 간 프로그램 매칭, 초·중·고교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부 진로 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진로체험지원 인력 관리 수행 * 전국 17개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220개 운영 중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취업, 창업 및 인턴십 관련 실질적인 기반 확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재학생 및 미취업 청년(만15~34세 이하)에 대한 일경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 중심의 진로탐색 및 조기진로 준비 등을 위해 1~3개월 범위의 '재학생 직무체험' 추진 중('16.7월~) * '17.9월말 현재 93개 대학, 4,794명 약정 체결(2,317명, 1,196개 기업 체험 완료) - 미취업 청년(만15~34세 이하)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에 대해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기업)에 대한 탐방기회 지원(1~5일 이내) * '17.9월말 현재 37개 운영기관, 6,169명 참여(269개 기업 탐방) ○ 청소년 취업 및 창업, 인턴십 홍보 활성화(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직업상담,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진로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취업 및 창업, 인턴십 전담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것은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청년정책사용설명서블로그(blog.naver.com/we_are_youth), 청년정책페이스북(www.facebook.com/weayouth)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청(소)년 취·창업 및 인턴, 직업·진로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중 ○ 일학습병행 지원에 대한 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기업 지정, 학습근로자 보호, 도제자격 부여 등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 추진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16.6월) → 환노위 상정('16.11월) → 환노위 공청회('17.9.2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진로 설계 어플리케이션 "DiDi"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계하여 커리어 플래너, 맘에 쏙 진로, 커리어넷 스마트북, e진로채널, 커리어넷 검사, 커리어넷 상담,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세계 등의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음 - 교내 진로 수업 활용 자료 공급 또는 사용 의무화 부분과 청소년 홍보단의 운영 부분은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체험 가상현실(VR) 프로그램 개발 및 터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현실 진로체험 공간 설치·운영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VR을 활용한 『스마트 가상 진로체험』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 관련 가상(VR 활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 2건 개발 및 전국 17개 중·고교에 시범운영(17.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또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공개 예정 ○ 가상현실 진로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복합공간 등의 가상현실 진로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은 지자체(교육청) 소관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체험센터』에는 체험공간 설치·운영 계획 중(18년)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분수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VOME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ME 프로젝트 추진단과 유사한 청소년조직이 기 구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 각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수련시설 운영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사업 전문가도 함께 참여토록 하고 있음 ○ 다만, VOME 프로젝트 제안 목적인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인문사회, 자연계열의 체험확대를 위해 동 내용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동아리를 확대하겠으며, 지역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동아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음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박람회, 동아리와 VOME 프로젝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ME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박람회에 관련 부스 운영 신청 및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등에 다양한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고려 시 VOME을 위한 별도 행사 개최는 어려우며, - 청소년박람회에서 청소년동아리에 대한 시상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시상분야 신설은 신중 검토 필요 ○ 향후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청소년동아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동아리 유형을 다양하게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해 나가겠음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8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진로멘토단 구성 및 운영확대 • 다양한 직업멘토 인력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멘토링 인력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주관으로 현직 직업인, 학부모, 퇴직(은퇴)자, 대학생 등 교내외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진로멘토풀(좋은어른*, 진로사람책**)을 구축하여 지원 중 <p>*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주 1~2회 규칙적으로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지원(학생 인솔 등), 센터 업무 지원 등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인력</p> <p>** 인력풀(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연간 1회 이상 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멘토링, 특강 및 상담 등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인력</p>	교육부 (수용)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진로멘토링 활성화 	교육부 고용노동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어넷 및 워크넷의 온라인 멘토링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어넷 진로상담 코너에서 1:1 상담, 직업전문가 상담, 또래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전문가, 직업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상담도 병행하여 제공 (진로토크콘서트,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등, '16~'17) - 현재 워크넷을 통해 유명 직업인 인터뷰(워크넷이 만난 사람들) 제공, 온라인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진로·직업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 상담내용의 전문성 강화 및 1대1 원격 상담 시스템, 오프라인 상담으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진로상담은 1대1로 진로·직업관련 질의에 대해 전문 직업상담원들이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후 지역 고용센터의 오프라인 상담으로 연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사업 참여 가능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 내실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의 실효성 강화 및 활성화, 다양한 방식의 홍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워크넷'을 사용자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직업·진로 정보 및 콘텐츠 강화 및 진로상담 게시판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임 - 특성화고 등에 직접 찾아가는 '커피트럭'을 통해 워크넷 사이트 홍보 추진 중 * 워크넷 앱을 다운받으면 커피 증정, 청년정책 설명회 운영 등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추진('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원격영상을 통해 전문직업인이 진로멘토링을 제공 중이며 * 현재 1,537교 대상 603명의 전문직업인 멘토가 3,400회의 수업 제공 중 * 부총리, 1일 멘토 참여 언론보도('17.10.19) -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을 통한 사업성과 홍보, 멘토 간 네트워크의 장(멘토데이) 개최, 감사장 등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임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속려제(dropcess) 운영 효율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학업중단속려기관 참여 제도화를 통해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및 중단 시 학교밖지원센터로의 연계 추진 중 - 연계 시 상담 및 교육, 진로탐색, 직업체험, 체육, 봉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중이며 향후 확대 추진 * (참고) 학업중단속려제는 재학생에게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된 제도 아님(교육부 검토의견)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교육, 진로탐색, 직업체험, 체육, 봉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중이며 향후 확대 추진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드림센터 내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여성가족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드림센터 내에 전문가 배치 및 지속관리를 통한 진로정보제공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청소년 욕구에 따른 진로정보제공 및 진로탐색, 직업체험 및 인턴십, 직업훈련 등 서비스 제공 중이며 향후 확대 추진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간의 연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활성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으로의 연계를 원할 경우 관련 사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학교 안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연계를 제고 노력(연중)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5	<p>• 탈북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p> <p>○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캠프 및 박람회 운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방문 및 직업체험 △기능·기술지원 △행사 등 계기 시 청소년 직업체험관 부스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 △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예비대학 운영(오프라인/온라인)**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할 계획(통일부) * 학과별 상담부스, 탈북민 선배와의 만남, 대입전형 안내 및 상담, 대학입시정보자료집 제작·배포 등 ** (오프라인) 매년8월~익년2월경 서울대/평택 국제대 합숙, (온라인) 매년11월~익년1월경 방송통신대 강좌, 남한 및 탈북민 선배 대학생을 멘티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병행 -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내-일을 잡아라) 및 외부지원* 사업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진로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탈북청소년 대상 진로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여성가족부) * OK(One Korea) 라이프코칭 사업 : 탈북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학업 및 자격증 취득, 분야별 전문가 라이프코칭 지원 등(현대차그룹 후원) - 상급학교 진학 및 졸업 후 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정책연구학교, 교사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캠프 실시(교육부) <p>○탈북청소년 학교진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하나돌학교) 및 통일부가 재정지원(국고보조)하는 탈북청소년학교*에서는 각종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관리할 계획(통일부) * 하나돌학교(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한겨레중고등학교(진로상담 및 진로직업 교육), 여명학교(진로지도 및 진로체험의 날 등 진로활동), 하늘꿈학교(진로지도 및 진로체험 활동) - 진학·직업 선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급별 진로·직업교육 매뉴얼(3종)을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 실시(교육부) - 특정 분야에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전문가와 1:1 결연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 실(교육부) <p>○하나센터 내 탈북청소년 전담부서 설치(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센터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생활 전반에 관한 생활밀착형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바, 탈북청소년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 설치의 전문성 및 재정(인력)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임 - 남북하나재단 및 탈북청소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임 	<p>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분수용)</p>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의 장 확장 	교육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역별 균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부터 매해 시·도교육청 요구에 따라 거점학교 설치 – ‘17년 현재 전국 48개 거점학교 설치·운영 중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급 재학 중인 장애학생 인원 등을 고려하여 1곳에서 8곳까지 설치·운영 –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거점학교가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추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네트워크 정보 주기적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거점학교 현황에 대한 정보 갱신하고 있음 * 정보 제공 사이트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neis.go.kr) 내 잡에블(Jobable)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추진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장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전국의 162개교 특수학교에서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보급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및 터전 확충 	교육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체의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프로그램**마련 * 시도교육(지원)청과 체험기관 MOU 확대 (‘15년 7,779개 → ‘16년 8,610개 → ‘17년 9,661개) **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 (‘16년 9,132개/17,161개 → ‘17년 10,612개/25,162개)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의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체험처·프로그램 분산 운영 – 지자체, 민간, 대학 등의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 * 학교에서는 꿈길(www.ggoomgil.go.kr) 및 오프라인을 통해 양질의 체험처 선택 가능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8	<p>• 자유학기제 대상 및 기간 확대</p> <p>○ 자유학기를 1학기 경험에 그치지 않고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1학년 자유학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p> <p>* 학생중심의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체계적인 체험활동 등의 자유학기의 취지는 '16년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운영을 통해서도 기 확대 추진 중(80개교)</p> <p>- 다만,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 지원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p> <p>* 중학교 1학년 중심 확대 및 내실있는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을 포함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발표 예정('17.10월말)</p> <p>- 향후 중학교 전체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감대 형성 및 내실 있는 운영 기반 확대 등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함이 바람직</p> <p>○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시범 요일 적용</p> <p>- 자유학기의 핵심인 학생 활동중심의 수업 및 과정중심의 평가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항이며,</p> <p>- 진로인식의 단계인 초등진로교육의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체제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진로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p>- 다만, 여건이 형성된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pre-자유학기제의 형태로 수업 및 평가의 변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p> <p>* (대구) 자유학기제 지역특화과제로 희망학교 초등학교에 적용</p> <p>- 향후, 초등 6학년 단계에서의 자유학기 시범요일 적용 등은 여건이 조성된 교육청에서 희망 학교 중심으로 자유학기의 취지를 실행하는 다양한 모델의 일환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p>	교육부 (부분수용)
19	<p>•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 연계강화</p> <p>○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별 진로체험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음</p> <p>-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p> <p>* (공공기관) 진로교육법 상 진로체험 제공 의무 규정, (민간) MOU 체결 등, (대학) 대학재정지원사업 내 진로체험 제공 관련 지표 반영 등</p> <p>- 교육부 차원의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중</p> <p>* (진로체험프로그램) 진로체험버스,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스타트업 캠퍼스 진로체험,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 스마트 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p>	교육부 (수용)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원봉사 전문 모바일앱 개발 및 보급 <p>○ 현재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 Dovol은 보건복지부 VMS와 행안부 1365를 통해 교육부 NEIS와 실적이 연계되고 있으며,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조회, 신청 등이 e-청소년 앱을 통해 가능한 상황임</p> <p>– 봉사관련 정보가 모두 연동되는 전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음</p> <p>○ 2016년 1365자원봉사포털 반응형 웹 적용 기완료</p> <p>–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도입으로 모바일과 PC 등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 완료함</p> <p>* 2017년 웹접근성 품인인증 취득</p> <p>○ 기관과 사이트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봉사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모바일 앱 개발은 예산확보 및 부처협의(복지부, 여가부 등)가 필요한 사항임</p>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부분수용)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p>○ 시도별 학생 동아리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p> <p>* 창의적 체험활동 시도담당자 협의회('17.4.9.), 학생 동아리활동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7.6.27.)</p> <p>○ 시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사업에 학생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 확충 및 개방 권장</p> <p>– 학교 내 특별교실*을 학생 동아리활동 장소로 개방 운영 권장</p> <p>* 과학실(물리실, 생물실, 화학실, 지구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체육관, 컴퓨터실, 기술가정실, 방송실, 도서관, 어학실 등</p>	교육부 (부분수용)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정규동아리 활동시간 확대 및 전문교사 배치 <p>○ 교내 동아리 시간은 국가 교육과정에 의거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사항으로 동아리 시간 확대 요구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가 정책과 배치됨</p> <p>– 따라서 각급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국가 교육과정, 지역사회 여건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동아리 시간을 편성·운영(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p> <p>* 교내 동아리 전문교사 배치도 같은 맥락임</p>	교육부 (불수용)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학상담교사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교육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정원 등의 문제로 모든 학교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학년별 진로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중, 고등학교의 94.2%(‘17.4월 기준)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지침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의 경우 2인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도록 교육감에게 권장하고 있음 ○ 진로전담교사 대상 연 1회 보수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유형별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p>* (‘17년 연수 운영 현황) : 초·중 진로전담교사, 초·중등 담임교사, 학교 관리자, 4차산업대비 역량강화 연수 등</p>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체험형 프로그램 체계화 및 확대운영 	교육부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학교의 ‘진로체험의 날’ 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해 실시되는 사항이며,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은 학교자율로 수립·운영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지원 대학생 배치 및 인센티브 부여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체 계획에 의거해 실시될 사항임 - 다만, 단위 학교의 다양한 진로체험 운영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교육과정 길잡이’를 제작·보급하였고, 전국 220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자원을 보급하고 있음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활성화 	교육부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각지 지역 교육(지원)청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자체 계획에 의거해, 청소년 대상 ‘진로박람회’가 ‘17년 기준 전국 160여 개 운영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교육부는 전국적 규모의 ‘진로체험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어 시·도 등 찾아가는 진로박람회의 개최는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될 사항으로 판단됨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진로 컨설팅 전문화 및 체계화 	교육부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교육부는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진로상담 인력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진로상담’ (연 35개교 대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진로전문가단’ 시범학교 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정책방향·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기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교육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학년별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별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음(‘17.1) – 이울러, 진로·진학상담 및 학생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공공·민간·대학 등의 진로체험 제공 유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등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목선 이수제 주관기관(대학교협)에서 교육기관(대학) 인증 및 교과별 교육과정을 심사하고, 인증받은 대학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생에 대해 대학 학점 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아리 활동으로는 운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 : 우수 고등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심화학습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 UP 제도가 대입전형과 연계될 수 있다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UP이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수강 및 이수 여부는 고교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입력가능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별대학 내 학칙 및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 활용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턴제도 활성화 	교육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율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역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현장실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법 개정 추진 (현재 개정안 마련 단계) - 다만,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는 재정 확보, 관계부처 협조 등 중장기적 검토 필요 ○ 재학생 직무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요건 확대 및 기업 참여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직무체험 활성화 유도 (수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갭이어(gap year) 정책 제정 및 운영 	교육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휴학 사유는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4항의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총장의 의지에 따라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점과 연계하여 학생이 프로그램을 설계·도전하면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진로 도전학기제(가칭)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법 개정 추진 중임. (현재 개정안 마련 단계) 	



붙임자료

- | | |
|--------------------------------|----|
| 1.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 48 |
| 2.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언론보도 | 79 |

I.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1. 정책과제 개요

□ 정책의제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2016.3.25.~3.26.)에서 청소년위원의 투표로 선정

□ 정책과제 발굴 결과 : 총 29개 과제 중 28개 과제 수용

분야	정책과제	계	수용		불수용
			수용 18	부분수용 10	
계		29			1
차별없는 교육	다문화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3	3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강화	2	2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균등성 확보	2	2		
함께하는 사회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6	4	2	
	장애에서 자유로운 (Barrier Free) 기반마련	4		4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3	2	1	
채움이 있는 지원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확대	2	1	1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확대	2	1		1
	장애청소년 지원 확대	2		2	
울림있는 홍보	매체를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1	1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2	2		

2.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개요

□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과정

◎ '16.1.25.	기본계획 수립
◎ '16.2.4.	정책의제 영역선정'사회·문화'
◎ '16.3.25.~3.26.	출범식 : 정책의제 선정, 의장단 선출 등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16.4월~8월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활동
◎ '16.5.27.~5.28.	의제연구워크숍(1차) - 지역별 발굴 정책과제 공유 및 분야 구분
◎ '16.7.29.~7.30.	의제연구워크숍(2차) - 정책과제 체계화 및 심층 분석
◎ '16.8.24.	정책과제 세부검토
◎ '16.9.2~9.3	예비회의 - 본회의에 상정할 정책과제 도출
◎ '16.10월	정책과제 관계부처 협의
◎ '16.11.24.	본회의 : 29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 '17.2.10.	정책과제 모니터링 지역별 분담
◎ '17.5.4.	정책과제 모니터링 안내
◎ '17.5.4.~7.31.	지역별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자료 조사(1차)
◎ '17.8월	청소년운영지원단 자료 조사(2차)
◎ '17.9월	사무국 자료 조사(3차)

□ 모니터링 결과 : 27개 정책과제 이행(93%)

분야	정책과제	과제 수	이행		미이행	불수용
			이행	부분이행		
계		29	15	12	1	1
차별없는 교육	다문화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3	2	1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강화	2	2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균등성 확보	2	1	1		
함께하는 사회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6	4	2		
	장애에서 자유로운 (Barrier Free) 기반마련	4		4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3	2	1		
채움이 있는 지원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확대	2	2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확대	2		1		1
	장애청소년 지원 확대	2		2		
울림있는 홍보	매체를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1			1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2	2			

□ 지역별 모니터링 분장표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지역
1. 차별 없는 교육	1-1. 다문화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1-1-1. 다문화청소년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① 다문화·비다문화청소년이 함께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교육부	전남
	1-1-2. 다문화가족의 효율적 지원 확대		
	②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울산
	③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경북
	1-2.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강화		
	1-2-1.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상 교육 지원 확대		
	④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상 시·도 교육청 교육 예산 확대	교육부	대구
	⑤ 청소년한부모 심리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세종
	1-3.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균등성 확보		
	1-3-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다양화		
	⑥ 교육 자립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광주
	⑦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 정보 확대	고용노동부	세종
2. 함께 하는 사회 기반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2-1-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⑧ 입학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권고	교육부	서울
	⑨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에 정보연계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서울
	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기반 마련		
	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적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부산
	⑪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충북
	2-1-3. 학교 밖 청소년의 균등성 보장을 위한 기반조성		
	⑫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는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	인천
	⑬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충북

2. 함께 하는 사회 기반	2-2. 장애에서 자유로운(Barrier Free) 기반마련		
	2-2-1. 장애청소년의 생활환경 조성		
	⑭ BF(무장애) 시설인증 제도 개정 및 지도 제작·보급	보건복지부	충남
	⑮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충남
	2-2-2.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⑯ 발달장애 청소년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	경기
	⑰ 2차 학대예방을 위한 안전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경기
	2-3.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2-3-1. 위기청소년 실태 관리 체계 구축		
	⑰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통합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대전
	2-3-2. 유형별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망 조성		
	⑱ 위기청소년 초기 대응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대전
	⑳ 피해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공간 조성	여성가족부	전북
3. 채움이 있는 지원	3-1.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확대		
	3-1-1. 북한이탈청소년 범주 명확화		
	㉑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재 개념화	여성가족부 통일부	부산
	3-1-2. 북한이탈청소년 성장 지원 확대		
	㉒ 북한이탈청소년 성장지원 토레 멘토링, 토레 중재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통일부	강원
	3-2. 저소득층청소년 생활지원 확대		
	3-2-1. 저소득층청소년 생활지원 확대		
	㉓ 저소득층청소년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
	저소득층청소년의 건강관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불수용
	3-3. 장애청소년 지원 확대		
	3-3-1. 장애청소년 이동권 확대		
	㉔ 장애청소년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강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울산
	3-3-2.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㉕ 장애청소년 대상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	교육부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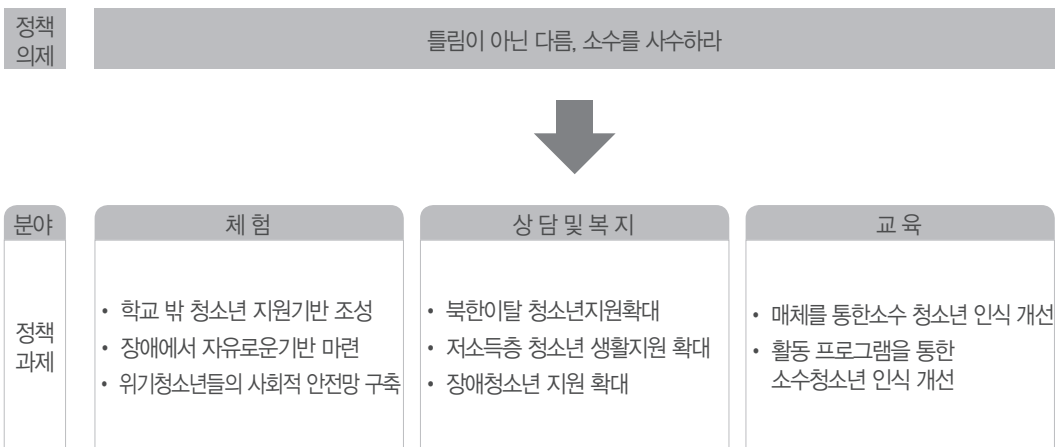
4. 올림 있는 홍보	4-1. 매체를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4-1-1.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활동 활성화		
	②6 소수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배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남
	4-2.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4-2-1. 소수청소년 이해 확산 전략 다양화		
	②7 소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남
	②8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공모전 및 박람회 개최	여성가족부 교육부	인천

3.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개요

□ 정책과제 구성

- 정책의제에 따라 4개 분야 설정
- 분야별 2~3개의 정책과제 부문 설정(11개 정책과제)
- 과제별 1~4개의 세부정책과제 설정(29개 세부정책과제)

□ 정책과제 체계



□ 정책과제 현황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 여부	이행 여부
1. 차별 없는 교육	1-1. 다문화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1-1-1. 다문화청소년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① 다문화 · 비다문화청소년이 함께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이행
	1-1-2. 다문화가족의 효율적 지원 확대			
	②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부분 이행
	③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1-2.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강화			
	1-2-1.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상 교육 지원 확대			
	④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대상 시·도 교육청 교육 예산 확대	교육부	수용	이행
	⑤ 청소년한부모 심리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1-3.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균등성 확보			
	1-3-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다양화			
	⑥ 교육 자립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⑦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 정보 확대	고용노동부	수용	부분 이행
2. 함께 하는 사회 기반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2-1-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⑧ 입학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권고	교육부	부분 수용	이행
	⑨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에 정보연계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기반 마련			

2. 함께 하는 사회 기반	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적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⑪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수용	이행
	2-1-3. 학교 밖 청소년의 균등성 보장을 위한 기반조성			
	⑫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는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	수용	부분 이행
	⑬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2-2. 장애에서 자유로운(Barrier Free) 기반마련			
	2-2-1. 장애청소년의 생활환경 조성			
	⑭ BF(무장애) 시설인증 제도 개정 및 지도 제작·보급	보건복지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⑮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2-2-2.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⑯ 발달장애 청소년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⑰ 2차 학대예방을 위한 안전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2-3.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2-3-1. 위기청소년 실태 관리 체계 구축			
	⑱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통합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2-3-2. 유형별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망 조성			
	⑲ 위기청소년 초기 대응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부분 이행
	⑳ 피해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공간 조성	여성가족부	부분 수용	이행
3. 채움이 있는 지원	3-1.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확대			
	3-1-1. 북한이탈청소년 범주 명확화			

3. 채움이 있는 지원	②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재 개념화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통일부	부분 수용	
	3-1-2. 북한이탈청소년 성장 지원 확대			
	②2 북한이탈청소년 성장지원 토래 멘토링, 토래 중재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통일부	수용	이행
	3-2. 저소득층청소년 생활지원 확대			
	3-2-1. 저소득층청소년 생활지원 확대			
	②3 저소득층청소년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부분 이행
	②4 저소득층청소년의 건강관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불수용	
	3-3. 장애청소년 지원 확대			
	3-3-1. 장애청소년 이동권 확대			
	②5 장애청소년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강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3-3-2.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6 장애청소년 대상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	교육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4. 울림 있는 홍보	4-1. 매체를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4-1-1.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활동 활성화			
	②7 소수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배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용	미이행
	4-2.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4-2-1. 소수청소년 이해 확산 전략 다양화			
	②8 소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이행
	②9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공모전 및 박람회 개최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이행

□ 정책과제별 세부내용 및 모니터링 결과

1. 차별없는 교육

1-1. 다문화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1-1-1. 다문화청소년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 제안배경

- 아동·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타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재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역량 중의 하나로서 다문화수용성 내지는 다문화감수성을 끄는 이들이 많아짐(정해숙, 2014).

◆ 정책과제

①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이 함께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학교는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캠페인 개발 보급
- 다문화 중점학교를 포함 모든 학생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 및 교육

◆ 모니터링 결과

①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이 함께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행〉

-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시행 중에 있음.
-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다문화교육이 이뤄지고, 다문화 및 비다문화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한 기관·지자체 등에서 진행되었음을 인터넷 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관련기사 매일일보(2017. 4. 26.)

경남도,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김지현 기자 | 승인 2017.04.26 18:29 | 댓글 0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경남도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인 '다양하고 경다운 다문화가족과의 공감 스토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외국인주민 수는 171만여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4%에 달한다. 그 중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11만 2300여 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다.

도는 체계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존에 유아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성인과 어르신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한다.

또 연령대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 유아에게는 여러나라의 전통 옷을 초등학생에게는 세계 여러나라의 인사를 가르치고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는 '다문화사회의로의 변화와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동등한 주제로 인정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강의, 체험, 캠페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은 무료로 운영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1-1-2. 다문화가족의 효율적 지원 확대

◆ 제언배경

- 다문화청소년은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 집단이며, 모든 다문화청소년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아님.
 - 다문화청소년 지원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회성 행사사업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양계민, 2014).

◆ 정책과제

②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확대

- 다문화청소년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효율적 지원
-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특성에 맞게 제공

③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다문화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다양한 문화특성을 고려하여 요구에 부합한 교육 기회 확대
-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지원 확대

◆ 모니터링 결과

②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정책방향 아래 지자체에서 다문화 가족의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누리콜센터 확인 결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소득분위 기준 및 프로그램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였음. 따라서 프로그램 확장 및 기준을 통일하여 지역차가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모니터링 결과

③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이행>

- 경상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경상북도로 한정된 위 결과에 대해 청소년운영지원단의 2차 모니터링 결과, 전국에 걸쳐 활발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경상북도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프로그램

지역	기관	프로그램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경주시		사회, 행복, 언어 등 월별 프로그램 진행
김천시		다문화가정 진로캠프 자신감 UP
안동시		언어영재교실(중국어)
구미시		다문화 대한민국 다같이 만들어 가요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속놀이 한마당
영천시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 <언어두개, 기쁨 두배>
상주시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밥상요리교실'
문경시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경산시		우리 손 job go !
군위군		지역금융교육
의성군		문화탐방 '고래야 놀자'
청송군		도전! 한글 골든벨
영양군		법률, 인권교육 등
영덕군		외국어 교실 운영
청도군		집단상담프로그램 내친구, 멍멍이
고령군		역사, 문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
성주군		심원사 템플스테이
칠곡군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예천군		사찰음식 체험 교육
봉화군		아나바다 장터, 전통문화체험 등
울진군		가족체험활동(1박2일 캠프)
울릉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꿈을 향한 학습 멘토링' 실시

1-2. 청소년한부모 대안학교 지원 강화

1-2-1. 청소년한부모 대안학교 대상 교육 지원 확대

◆ 제언배경

- 현재 청소년한부모 대안학교 예산투입을 통해 더 나은 교육 기회 보장
- 청소년한부모에게 안정된 주거와 양육, 자립을 위한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방안마련도 시급함.
- 청소년한부모들이 원적학교 내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졸업이후에도 학교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보임(정해숙, 2014).

◆ 정책과제

④ 청소년한부모 대안학교 대상 시·도 교육청 교육 예산 확대

- 대안학교 및 학생들과 밀접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의 청소년한부모 대안학교 교육 예산 확보

⑤ 청소년한부모 심리 지원 확충

- 청소년한부모 상담 지역네트워크 활용
- 각 학교에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 및 전문 상담사 배치
- CVS-Net Wee-Center 지원 확대

◆ 모니터링 결과

④ 청소년한부모 대안학교 대상 시·도 교육청 교육 예산 확대 <교육부, 이행>

- 교육부에서는 2017년도 17개 시·도교육청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 특별교부금 18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 각 시·도 청소년한부모 수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차등적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총 금액은 18억원임. 또한 청소년한부모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질적으로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한부모 수는 적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로서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은 약간 감소할 예정이라고 함.
-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은 한부모청소년 현황에 따라 증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경기, 부산, 전남, 경북에서는 예산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대구, 충남, 전북, 경남에서는 감소하며 나머지 지역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 또한 각 시도의 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의 예산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결과

지역	예산 현황
서울	40개 기관 중에 1기관에서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부산	매년 청소년한부모 수요에 따라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대구	현재 천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함.
인천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음.
광주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13개 기관 중 현재 1기관에서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전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음.
울산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지않음.
세종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음.
경기	5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중에 2기관이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하고 있음.
강원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음.
충북	학생수가 적어서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대안교육위탁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
충남	충남의 청소년은 1~2명 정도이며 예산은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
전북	전북의 청소년은 1~2명 정도이며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	예산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북	2014년 10기관을 지원했으나 2016년에는 11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경남	16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중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하는 기관은 '로뎀학교' 1기관에서 지원
제주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음.

⑤ 청소년한부모 심리 지원 확충 <여성가족부, 이행>

○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에서 입소자 상담·치료 사업으로 심리지원 추진 중임

– 추진현황 : 2017년 10월 개소

(유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형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정원): 40명 → 65명

향후계획 :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사업 지원('18년 예산지원 등)

* (예산원) '17년 입소자 상담·치료사업 예산지원은 없으며, 필요 시 지역 정신보건센터 연계 중

〈참고: 청소년한부모전용시설 운영 개요〉

- ① 미혼모자시설내 거주공간 외에도, 중·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별도 설치
-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학적을 둔 임신·출산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 수업(교실형 위탁교육/대안교육) 실시
*퇴학, 자퇴, 휴학 중인 학생은 복교 절차를 통해 학적 회복 후 입학 가능
*수업은 모두 재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졸업장 또한 재적학교명으로 발급
- ③ 청소년한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담·숙식·분만의료 등 지원

○ 교육부와 협조하여「교사용 청소년한부모 상담매뉴얼」배포 등 담당교원제 도입('17.3월)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미혼모시설 등 포함('16년)하는 등 타 협력기관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연계 중

※ 관련기사(머니투데이, 2017. 7. 20.)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위한 중·고등수업 마련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와 비슷한 환경에서 중·고등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실형 위탁교육'이 미혼모자 생활지원시설 내에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한부모 학습권 강화와 자녀양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에는 거주공간 말고도 중등교실,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 학습환경이 구비된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이 설치된다.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 수업을 실시하는 '교실형위탁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퇴학, 자퇴,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복교절차를 통해 학적을 회복한 뒤 입학할 수 있다.

1-3.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균등성 확보

1-3-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 다양화

◆ 제안배경

-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은 존재하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부족
 - 여성가족부는 2015년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부족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65.7%)를 준비하나 검정고시 준비에 있어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다양한 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 기회 및 진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로 다양화

◆ 정책과제

⑥ 교육 자립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 서비스(온·오프라인)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⑦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 정보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1:1 진로정보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정보 사이트 접근성 강화

◆ 모니터링 결과

⑥ 교육 자립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이행)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학입시 설명회, 학습 멘토링 및 검정고시 대비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서비스와 고등 교육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관련기사

⑦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 정보 확대 (고용노동부, 부분이행)

- 한국잡월드 유선 인터뷰 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통한 신청으로 진로지도 및 직업진로교육을 실시중이나, 1:1 진로정보 서비스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2. 함께하는 사회기반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2-1-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 제안배경

- 한 해 6만 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임(백혜정, 2015).
- 학적 처리단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보가 센터로 이관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out-reach) 할 수 있는 센터 내 인력이 부족하여 '연계를 통한 이관(사례의뢰)'에 의존하는 구조임(김지연, 2015).

◆ 정책과제

① 입학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권고

- 자퇴 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를 교급별 입학에 맞춰 학교에서 작성 권고

②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에 정보연계 체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을 위해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 모니터링 결과

⑧ 입학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권고 <교육부, 미이행>

-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 연계율 제고를 위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단위 학교에 권장은 가능함
- 그러나 개인정보를 추후 학업중단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⑨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에 정보연계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이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21일부터 일부개정되어 시행됨
-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개정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장 및 단체장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본인에게만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음

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기반 마련

◆ 제안배경

-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성공적인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도움.
- 하지만 현재 센터마다 유사한 핵심사업 위주 운영으로 다양한 욕구(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함. 또한 운영에 있어서 꿈드림센터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에, 센터 재정립과 인력 확충이 필요함.
- 학업복귀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한 자립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고 삶에 대한 동기부여, 자립에 있어서 완충기간 설정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의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백혜정, 2015).

◆ 정책과제

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적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시·군·구 지원센터 소수 전담인력에 대한 단계적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는 체계적인 지원 및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시스템 창구 일원화
- 대학생 멘토링단 구성·활동

⑪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 권역별 특성화 사업 센터의 통합 운영과 타 지역 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수 프로그램 공유 및 예산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성화
- 지역 내 사업장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체험 및 일자리 연계

◆ 모니터링 결과

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적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이행>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담 인력 확충
 - 2015년도 2명, 2016년도 2명 ~ 최대3명(추가 520여명), 2017년도 2명 ~ 최대 4명(추가 560여명) 인원 총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통한 학교 밖 지원 및 발굴 대책마련
 - 2015년 : 8월 시작 총 1회 개최
 - 2016년 : 상·하반기 총 2회 개최
 - 2017년도 : 상반기 회의 1번 회의, 총 2회 개최 예정
- 대학생 멘토링 : 시·군·구 청소년과 대학생 등 참여 중
 - 2017년도 변경사항 : 멘토링 매뉴얼 제작, 많은 멘토링 지원자 확충(전국 202개 센터 2,000여 명)

⑪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이행>

-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상담·교육·취업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타 시·도 센터와 연계하여 특성화 사업(체육대회·예술제·e-스포츠)이 진행되고 있음

- 전국에서 7개 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충청북도 사례 : 총 4단계로 진행. 진로탐색/동기부여 → 기술교육 → 직업체험 → 진로(취업)연계)
- 전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활성화 되고 있음을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2-1-3.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을 위한 기반조성

◆ 제안배경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자퇴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시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소외감과 심리적 불편을 경험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하게 각 종 할인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청소년증 발급 인원은 전국 청소년 653만 9천여 명 중, 2014년 50,663명, 2015년 95,108명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음.

◆ 정책과제

⑫ 학교 밖 청소년 차별 명칭 변경

-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학생' 대신 '청소년'으로 명칭변경 권고
- 각종 행사 및 대회 모집 대상이 구분될 때 연령별 기준 모집

⑬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활성화

- 청소년증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혜택 및 할인·우대를 제공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청소년증에 대한 다각적 홍보방안 모색하고 청소년증 발급 기관 확대 뿐 아니라 발급대행 기관의 확대

◆ 모니터링 결과

⑫ 학교 밖 청소년 차별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2017년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국외) 참가자 모집 (여성가족부 공고)
 - 청소년의 참가자격에서 재학 중인 청소년 이외에 미재학 청소년도 포함시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함
 - 운영지원단의 2차 모니터링 결과 많은 부처 및 기관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 차별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일부 '학생' 명칭 사용 사례가 있어 아래에 첨부함. 앞으로도 청소년특별회의와 여성가족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관련기사(환경일보, 2017. 5. 31.)

항공조종사의 꿈을 향해 하늘로!
-국토부, 5월 31일부터 3박 4일 항공조종 체험캠프 70명 모집 -

2017년 항공조종 체험캠프가 7월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종사가 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캠프 프로그램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시설견학, 모의비행훈련장치 체험비행, 알기 쉬운 항공강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조종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업선택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성인(만 19세~29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6월1일(목)부터 6월19일(월)까지 70명(고등학생 35명, 성인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울진군 지역주민 8명에게는 무료 참가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울진비행훈련원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항공조종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진로탐색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휴공향인 울진비행장에 설립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지난 2010년 개원 이래 총 452명의 사업용조종사를 양성했으며, 그 중 313명이 대한항공 등 항공사 및 비행교관으로 취업하여 약 70%의 취업률을 달성 중이다.

⑬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청소년증에 다양한 혜택(전국호환 교통카드기능, 편의점 등 가맹점 선불카드 결제기능, 각종 문화시설 면제 또는 할인 등)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이 추가되었음
- 청소년증 홍보 포스터가 청소년시설, 시내, 은행 등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음
 - 여성가족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청소년증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영상도 제작되어 조회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오프라인, 온라인, 언론보도 등 다각적으로 청소년증을 홍보 중임
- 발급대행 기관은 확대되지 않았으나, 발급절차가 편리해 졌으며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가 진행되도록 변화되었음

〈꿈드림센터 게시판 홍보포스터〉	〈청소년증 홍보영상 게재〉
	

2-2. 장애에서 자유로운(Barrier Free) 기반마련

2-2-1. 장애청소년의 생활환경 조성

◆ 제안배경

-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무장애 시설설치가 미흡함.

◆ 정책과제

⑭ BF(무장애) 시설인증 제도 개정 및 지도 제작·보급

- BF인증기간의 단축과 더불어 신축건물 뿐만 아닌, 건축된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인증 기준을 별도로 구성하여 장애 청소년 편의 증진 기반 마련
- 다양한 기능 (휠체어 · 점자블록으로 다닐 수 있는 길, BF인증시설 표시 등)이 담긴 스마트폰 지도앱 개발 및 보급

⑮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장애인 편의에 맞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 장애인 편의에 맞는 정보접근 환경 조성
- 장애인 편의에 맞게 학교시험에서도 수능시험과 같은 편의 환경 조성
- 장애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모니터링단 조직

◆ 모니터링 결과

⑭ BF(무장애) 시설인증 제도 개정 및 지도 제작·보급

〈보건복지부, 부분이행〉

- 2015년 11월 교육부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을 수립함.
- 위 계획의 일부에는 BF · 편의증진 기술 및 연구를 위해 ‘스마트폰 앱 형태로 복지로의 우리동네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을 계획함.
- 2016년 정책이 제안된 이후 새로운 계획이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2015년에 무장애시설인증제도가 개정되고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중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도 제작 · 보급을 계획한 것으로 보았을 때, 정책이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0조의2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⑮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 지원대상: ('16년) 63천명 → ('17년) 65천명
- 지원단가: ('16년) 9천원 → ('17년) 9,240원
- 소요예산: ('16년) 5,220억원 → ('17년) 5,461억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설치 완료 → 생애 전환기를 중심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령별 최적의 서비스 연계·지원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요내용

①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
-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대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예정임

②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하여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
- 이를 위해,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을 실시

③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20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17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임
-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하도록 고속·시외버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위한 운영·예약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

2-2-2.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제언배경

- 학대받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필요성 증대
 - 장애아동 학대 출현 건은 2012년 256건에서 2014년 452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피해아동특성'재편집)

◆ 정책과제

⑩ 발달장애 청소년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17개 시·도 발달장애 지원센터와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읍·면·동 단위의 '장애·비장애청소년 및 부모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구축
- 1388, 1366 상담원 대상 발달장애 청소년 및 장애인권감수성 향상 및 장애인권 시설 연계 교육 실시

⑪ 2차 학대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조사 및 진술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특성을 교육 받은 '진술조력인' 양성
- 학대경험 장애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 청소년 보호시설 설치

◆ 모니터링 결과

⑩ 발달장애 청소년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 부분이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구제 업무로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수행 중

⑪ 2차 학대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부분이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근거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으로서 의사소통 조력 역할 담당
- 「장애인복지법 개정」(15.6.22.)에 따라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7년)

2-3. 위기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2-3-1. 위기청소년에 실태 관리 체계 구축

◆ 제언배경

- 통계조사는 정책의 수립, 진행, 평가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위기청소년(가출, 비행, 폭력, 학업중단, 다문화 등)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정책과제

⑩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통합조사 실시

- 위기청소년을 정확히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으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통계조사 실시

2-3-2. 유형별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망 조성

◆ 제언배경

- 심터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현재 청소년심터 운영에 있어 예산, 운영기관 수, 인지도 등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김지연, 2014).

◆ 정책과제

⑨ 위기청소년 초기 대응체계 확대

- 조기개입, 현장지원, 연계활동을 주요 서비스로 하는 이동형(차량)심터 전국 확대
- 청소년 시설(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관))을 활용한 위기청소년신고센터(가칭) 확대

⑫ 피해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공간 조성

- 현재 청소년심터 관련 정부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의 통합적 심터 마련
- 위기청소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공간 조성

◆ 모니터링 결과

⑩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통합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이행>

-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유형별 실태조사를 5~6년 주기로 실시 중임(2016년 기 실시)

⑨ 위기청소년 초기 대응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지원을 위한 청소년심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14년) 109개소(일시 22개소) → ('16년) 119개소(일시 28개소) → ('17년) 123개소(일시 30개소)

③ 피해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공간 조성 <여성가족부, 이행>

- 대부분의 기관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기관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심터 등이 있음.

※ (사례) 시흥 위기 청소년심터는 가정폭력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가출청소년보호 청소년심터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두고 가출 또는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입소, 자립 및 보호 지원, 가정 및 학업복귀 지원, 문화 여가생활 지원을 하고 있음.

- 정부가 그동안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중추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국 224개소('17년 기준)로 확대하고, 지난해 청소년 22만 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수해청소년의 이용 전후 위기 개선율이 크게 개선되었음

※ CYS-Net 서비스 효과성 : ('14) 16.9% → ('15) 17.9% → ('16) 20.1%

3. 채움이 있는 지원

3-1.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확대

3-1-1. 북한이탈청소년 범주 명확화

◆ 제안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제3국을 통하여 남한으로 입국하지만 탈북 후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이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정착지원법)의 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여 현행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경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자 국	육 상		42 (64.6)	11 (73.3)	10 (20.4)	13 (4.1)
	해상	동 해				1
		서 해				24
		남 해				0
	계		18 (27.7)	1 (6.7)	7 (14.3)	25 (7.9)
공 중		1 (1.5)	0 (0.0)	1 (2.0)	1	
제3국	중국/홍콩 소련/유럽 아시아 미 주 계					143
						87
						42
						1
					4 (6.2)	3 (20.0)
계			65 (100.0)	15 (100.0)	49 (100.0)	316 (100.0)

출처: 통일원 연구자료 (www.nkrf.re.kr)

- 언어, 정체성,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불분명한 소속문제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음.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과 부모 역시 이들이 북한이탈청소년으로 분류되고 같은 혜택 받기를 원함.

◆ 정책과제

①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재 개념화

- 북한이탈청소년에 속하지 못하지만 부모 중 부 또는 모가 북한이탈주민이기에 북한경험을 가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일부로 정책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을 뜻하며, 다문화청소년이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의미함.
 - 지원범주 재개념화되면 정확한 소속 없이 법적보호 및 지원에서 소외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에게도 그에 준하는 지원 가능

3-1-2. 북한이탈청소년 성장지원 확대

◆ 제안배경

-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2,500명) 대상 맞춤형 멘토링이 실시되고 있으나, 연령대가 유사한 또래 멘토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정책과제

② 북한이탈청소년 성장지원 또래 멘토링, 또래 중재 프로그램 지원

- 연령대가 유사한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및 적응 등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니터링 결과

①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재개념화 <여성가족부, 통일부, 이행>

- 통일부는 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양육가산금 2017.2.23.에 통과, 현재 신청 가능하며, 하나원 퇴소후 기본급 지급 후, 1년 동안 분할 지급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특례입학 지원, 교육부와 통일부 협의 후 2019학년도 대입부터 정원 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대입 전형 개설예정

② 북한이탈청소년 성장지원 또래 멘토링, 또래 중재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통일부, 이행>

- e-청소년 사이트에서 북한이탈청소년 관련 활동 조사 시 멘토링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찾기 쉽지 않음. 반면 북한이탈청소년을 제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비교적 찾기 쉬워 해당 정책에 적용되는 활동들 개설 및 활성화, 홍보가 필요함.
 - 또한 기존의 단기적인 프로그램들을 개선해 장기적인 유지가 필요
- 통일부에서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 통일한국을 잡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함.
 - 주된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참여하는 캠프나 토론, 지역별 행사와 축제이며 멘토링과 중재 프로그램은 찾기 쉽지 않았음.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홍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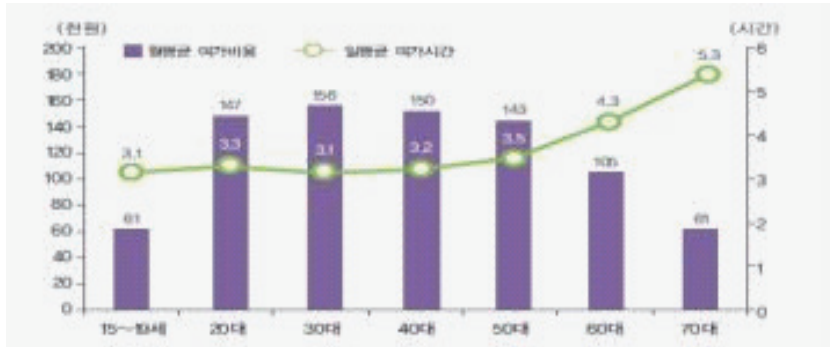
3-2.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지원 확대

3-2-1.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 지원 확대

◆ 제안배경

- 청소년시기 문화예술 활동은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 등 행동증세로 표출되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김인설, 정득, 이종석, 2014).
- 또한,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 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이 높았으며(김윤정, 2014),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과 정적이 상관관계를 보임(정혜린, 2014).

- 2014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문화활동의 어려움 중 비용이 많이 든다.'가 47.6%로 10대 아이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여 문화누리카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씩 문화 활동을 지원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료에 따르면 15~19세 월 평균 여가비용이 6만 1천원인 것을 보아 지원의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여가활동 지표현황과 시사점' (김휘정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문화정책학 박사) (2014)

◆ 정책과제

②③ 저소득층청소년의 문화생활 기회확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점검 실시 및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가맹점 발굴 확산
- 주민센터 권역별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행하여 지역별 삶의 질 향상 도모

②④ 저소득층청소년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

-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를 전국적으로 확산

◆ 모니터링 결과

②③ 저소득층청소년의 문화생활 기회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부분이행>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점검(연 2회, 6개 권역)을 비롯한 사용자 모니터링(1일 15명), 물물거래사이트 모니터링(일일) 등 가맹점 상시 관리·감독 중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연계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 연계, 우수사례 공유,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 저소득가구의 만 3세~12세 아동 대상으로 각종 직업문화를 체험하며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생활 지원

※ 관련기사 : 강원도민일보(2017. 08. 15.)



⑭ 저소득층청소년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불수용>

3-3. 장애청소년 지원 확대

3-3-1. 장애청소년 이동권 확대

◆ 제언배경

○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경험률이 이용희망률에 비해 부족한.

표 5. 주요정책대상별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간 이용경험률 및 이용희망률

(단위: %)

일반 장애인						장애 아동·청소년		
구분	이용 경험률	이용 희망률	구분	이용 경험률	이용 희망률	구분	이용 경험률	이용 희망률
1. 장애인복지관	10.8	31.2	8. 직업재활시설	1.8	12.0	1.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4	30.0
2. 장애인 재활병원	2.4	26.3	9. 주간단기보호시설	0.6	10.0	2.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4.9	2.6
3. 장애인성부활센터	0.6	18.8	10. 정신의료기관	2.5	2.7	3. 특수교육지원센터	0.8	2.2
4. 장애인체육관	1.5	16.5	11. 정신보건센터	0.3	1.7	4. 장애아동보호시설	1.0	0.7
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9	15.7	1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0.4	1.4			
6.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3	13.7	13. 수화통역센터	0.4	0.9			
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	13.5	14. 집지도서관	0.3	0.6			

자료: 권성희 의원(2016),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수요자에 비해 한정된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직 다수의 지역이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음.

예) 대구지역 : 총 112대의 차량을 보유했지만, 수요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매달 200명가량 신규 등록)

◆ 정책과제

① 장애청소년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강화

- 지역보다 군단위주로 보급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지역 확대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차량 확대
-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 팔찌, 목걸이 등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용 교통카드 제작 및 보급
- 지하철 내 장애인용 게이트 카드단말기 양쪽 설치(원손잡이용)

◆ 모니터링 결과

② 장애청소년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강화 <국토교통부, 부분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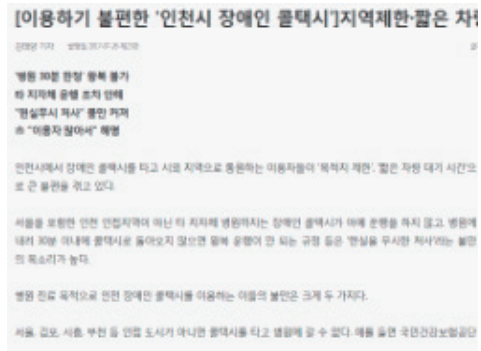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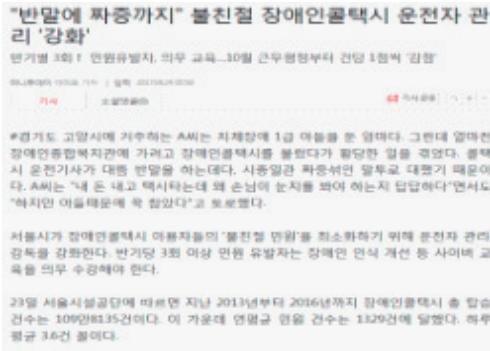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는 장애청소년만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는 없으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즉,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자료 조사(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료)
 - 장애인 복지혜택 관련부서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단 등의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에도 민간급주체까지 다양함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11. 장애인 콜택시 (1~2급/ 지자체에 따라 이용 등급 확대)

구분	이용대상																		
공통	• 1~2급 중증장애인으로 휠체어 이용자(주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기타	• 지자체 따라 3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가능 장애 유형 구분 • 지자체 따라 만 65세 노약자 및 임신부, 외국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휠체어 이용자																		
지역별 이용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이용대상</th></tr> </thead> <tbody> <tr> <td>서울</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지체 및 뇌병변장애 1, 2급, 오토바이 1급 - 지적장애 1급, 자폐성장애 1, 2급은 보호자 동반시만 이용 가능 - 정신장애 1, 2급은 보호자 동반 및 휠체어 이용자인 이용가능 - 기타 장애 1, 2급 장애인도 휠체어 이용자인 이용 가능 - 복합장애 1, 2급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확인 후 세부장애에 이용규정 적용 </td></tr> <tr> <td>부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리발(장애인특장차) : 휠체어 이용 고객 - 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시각, 산정투석, 지체,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 위 앞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바우처 콜택시(장애인 콜택시) : 비휠체어 고객 - 시각 1~2급, 지적 및 자폐성장애 1~2급 </td></tr> <tr> <td>인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거주자(타도시민 1~6급 장애인 이용 가능) -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장애와 하지 지체장애 -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고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td></tr> <tr> <td>수원</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장기요양등급 1~3급 • 버스나 지하철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신부 • 관외 거주자 : 1~2급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 1월 이상 수원시 소재병원 장기 입원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 수원시 주관행사 참여하는 휠체어이용 교통약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td></tr> <tr> <td>부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및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하다는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td></tr> <tr> <td>평택</td><td>• 1~3급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시각장애인 1~4급</td></tr> <tr> <td>대전</td><td>• 1, 2급 등록 장애인과 동반 가족(보호자 포함)</td></tr> <tr> <td>제주</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15개 전 장애유형(도외 장애인 포함)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국가유공자, 임신부, 외국인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지체, 자폐성장애 1, 2급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 함께 탑승시 이용 가능) </td></tr> </tbody> </table>	구분	이용대상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지체 및 뇌병변장애 1, 2급, 오토바이 1급 - 지적장애 1급, 자폐성장애 1, 2급은 보호자 동반시만 이용 가능 - 정신장애 1, 2급은 보호자 동반 및 휠체어 이용자인 이용가능 - 기타 장애 1, 2급 장애인도 휠체어 이용자인 이용 가능 - 복합장애 1, 2급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확인 후 세부장애에 이용규정 적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리발(장애인특장차) : 휠체어 이용 고객 - 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시각, 산정투석, 지체,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 위 앞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바우처 콜택시(장애인 콜택시) : 비휠체어 고객 - 시각 1~2급, 지적 및 자폐성장애 1~2급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거주자(타도시민 1~6급 장애인 이용 가능) -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장애와 하지 지체장애 -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고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장기요양등급 1~3급 • 버스나 지하철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신부 • 관외 거주자 : 1~2급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 1월 이상 수원시 소재병원 장기 입원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 수원시 주관행사 참여하는 휠체어이용 교통약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및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하다는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평택	• 1~3급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시각장애인 1~4급	대전	• 1, 2급 등록 장애인과 동반 가족(보호자 포함)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15개 전 장애유형(도외 장애인 포함)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국가유공자, 임신부, 외국인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지체, 자폐성장애 1, 2급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 함께 탑승시 이용 가능)
구분	이용대상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지체 및 뇌병변장애 1, 2급, 오토바이 1급 - 지적장애 1급, 자폐성장애 1, 2급은 보호자 동반시만 이용 가능 - 정신장애 1, 2급은 보호자 동반 및 휠체어 이용자인 이용가능 - 기타 장애 1, 2급 장애인도 휠체어 이용자인 이용 가능 - 복합장애 1, 2급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확인 후 세부장애에 이용규정 적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리발(장애인특장차) : 휠체어 이용 고객 - 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시각, 산정투석, 지체,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 위 앞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바우처 콜택시(장애인 콜택시) : 비휠체어 고객 - 시각 1~2급, 지적 및 자폐성장애 1~2급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거주자(타도시민 1~6급 장애인 이용 가능) -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장애와 하지 지체장애 -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고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장기요양등급 1~3급 • 버스나 지하철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신부 • 관외 거주자 : 1~2급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 1월 이상 수원시 소재병원 장기 입원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 수원시 주관행사 참여하는 휠체어이용 교통약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및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하다는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평택	• 1~3급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시각장애인 1~4급																		
대전	• 1, 2급 등록 장애인과 동반 가족(보호자 포함)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15개 전 장애유형(도외 장애인 포함)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국가유공자, 임신부, 외국인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지체, 자폐성장애 1, 2급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 함께 탑승시 이용 가능) 																		

-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고 불친절한 기사들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 13 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 불친절 민원분류

(단위 : 건,%)

계	인격무시 (반말, 짜증)	법·규위반 (신호, 속도)	운전·안내미숙	기 타
586(100%)	381(65.0%)	62(10.5%)	37(6.3%)	107(18.2%)

※ 기 타 : 요금과다, 경로불만, 청결, 휴연, 운전원 단순실수 등

3-3-2.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언배경

- 현재 중·고등학교 현장체험 학습에서 장애 청소년들은 비장애청소년들과 함께하지 못하거나 따로 다니는 경우가 있음. 외부 봉사활동에서도 경우에 따라 제외된다고 함.
- 장애청소년이 비장애청소년들과 함께 외부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활동이 진행된다 한들 청소년들이 받는 시선이나 여러 제약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정책과제

② 장애청소년 대상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

-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학교별로 매년 최소 1년 2번(학기별 1회 진행 또는 한 학기에 2회 진행) 교외에 체험활동을 나가는 활동 추진
- 장애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을 활동장소로 선정

◆ 모니터링 결과

② 장애청소년 대상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 <교육부, 부분이행>

- 전국 643개 기관과 연계하여 711개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전체 31,479명의 학생들이 참여)
 - 특수학교 예술동아리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한 장애 예체능 영재 지원 강화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309개 기관과 연계하여 399개 프로그램 운영(전체 9,056명의 학생들이 참여)
 - 특수학교(5교) 스포츠강사 배치
 - 특수학교 중학교과정 스포츠강사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편성 운영(16.03월~12월, 총34주 운영)
 - 토요일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초·중·고·특수학교에서 6,601명 이상 배치(16.03월~12월, 총 32주 운영)
 - 특수학교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스포츠데이]운영
 -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는 특수체육을 전공한 전문인력 채용을 권장중임
- 중학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 특수학교(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대비 연수 실시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의 교육 시설 및 자원 활용

4. 올림이 있는 홍보

4-1. 매체를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4-1-1. 소수청소년 인식개선 활동 활성화

◆ 제언배경

- 꿈드림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등에서 소수청소년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배포가 잘 되지 않아 소수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소수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작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노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⑳ 소수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배포

-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등 대상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은 관련기관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소수청소년을 아우르는 영상이 없기에 소수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영상 제작 필요
- 대상별(학교 밖, 한부모청소년, 탈북 등)로 제작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 강화
- 교내 다문화, 성폭력 등 의무교육시간에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영상 상영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유관부처 홈페이지 배너 제작

◆ 모니터링 결과

㉑ 소수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배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미이행〉

-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에 따른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이 있었음
-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청소년 등 소수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찾기 어려웠음
- 또한, 유튜브나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소수청소년에 대한 미디어를 찾아 볼 수 없었음

4-2.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개선

4-2-1. 소수청소년 이해 확산 전략 다양화

◆ 제안배경

- 소수청소년에 대한 혹은 소수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청소년의 흡연, 성,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들은 이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편이나 소수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 정책과제

⑳ 소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소수청소년(다문화, 탈북청소년 등) 관련 기관은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

㉑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공모전 및 박람회 개최

- 소수청소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소수청소년이 가지는 권리,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연극 시나리오, 포스터 등에 대한 공모전 개최
- 소수청소년을 주제로 정보 습득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 소수청소년들의 공연 혹은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소수청소년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모니터링 결과

⑳ 소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행〉

- 소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

▶ 방법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자료 및 뉴스 검색, 유튜브 및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

-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하는 통합캠프 한부모가족을 향한 편견없는 시선 공모전
- 교 육 부 : 다문화가정학부모를 위한 영상 콘텐츠 배포

㉑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공모전 및 박람회 개최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행〉

- 교육부는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UCC, 포스터/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교육자료 등의 분야에서 공모전을 실시하였음
-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초·중등학교별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기타 다양한 공모전 등이 개최되었음



II.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주요 언론보도

연번	보도매체	내 용
1	2.10. Ⅱ 디트니스24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 모집
2	2.15. Ⅱ 중부매일	'아이디어 모아모아 대한민국 정책으로'
3	3.31. Ⅱ 뉴시스	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출범... 진로정책 논의
4	3.31 Ⅱ 아시아경제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출범... 올해 논의 주제는 '진로'
5	3.31 Ⅱ 정책브리핑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진로 정책'을 제안한다.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출범식』 개최, 올해 정책의제 선정 -
6	3.31 Ⅱ 연합뉴스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출범식'
7	11.17 Ⅱ 아시아경제	여성가족부,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본회의 개최
8	11.17. Ⅱ 연합뉴스	청소년이 바라는 진로정책...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9	11.17. Ⅱ 정책브리핑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 진로정책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본회의』 개최, 연간 활동결과 보고
10	11.17 Ⅱ 내일신문	청소년의 제안하는 진로정책 - 여가부 특별회의
11	11.17. Ⅱ 뉴시스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본회의
12	11.17 Ⅱ 국제뉴스	부산시, '청소년특별회의' 전국 최우수 선정
13	11.17. Ⅱ 중도일보	부산시, 2017년 전국 최우수 청소년특별회의 선정!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인	쇄	2017년 12월
발	행	2017년 12월
발	행	인 신 은 경
발	행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층, 5층 Tel. 02-330-2800 Fax. 02-6430-0927 www.kywa.or.kr
발간등록관리번호		KYWA-2017-155-10
인	쇄	처 크리에이티브 디앤아이 Tel. 02-535-8624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